



# 조경수의 병해충

- 이세리아깍지벌레 -



이 상 길  
임업연구원 산림생물과  
해충관리연구실

호주원산으로 현재는 전세계의 열대, 아열대, 온대남부, 온대의 온실에서 조경수에 대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본 해충의 형태, 생태특성 및 방제방법 등에 대해 소개코져 한다.

●학명:

*Icerya purchasi* Maskell

●과명: 이세리아깍지벌레과  
(Margarodidae)

●영명: Cottony-cushion scale

●일명: 이세리아카이가람시

●기주식물: 굴나무, 주목, 싸리나무, 배나무, 감나무, 아까시나무, 백목련, 은행나무, 무화과, 모란, 목련, 돈나무, 복사나무, 장미, 사과, 싸리, 감탕나무, 단풍나무류, 포도, 후피향나무, 동백나무, 식나무, 진달래, 치자나무, 협죽도 및 관상식물 등 100종 이상

●분포: 한국, 일본, 중국(남부), 대만, 미국, 아프리카, 호주

●피해: 국내에서는 감귤재배농가에서 쉽게 발견되며 아파트

생활의 대중화로 조경수의 실내재배에 따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주식물의 신초(新梢) 및 가지에 성충과 약충이 군서하여 흡즙하므로 수세가 약화되거나 말라죽게 되며 그을음병을 유발시킨다.

●형태: 암컷성충의 깍지길이는 5.0mm이며 타원형으로 등황색을 띤다. 등면에 융기선(隆起線)과 다수의 털이 있다. 배면은 옅은 주황색이며 더듬이와 다리는 검은색이다. 더듬이는 11마디로 되어 있으며 다리에 긴 갈색 센털이 있다. 입틀은 작고 2마디이며 다소 염통모양이다. 항문은 달걀모양이며 등면끝부에 위치하여 긴 갈색의 센털로 둘러싸여 있다. 알주머니의 길이는 120~130mm이고 반원형의 백색이다. 알은 0.8mm정도이고 타원형으로 등황색이며, 약충은 타 원형으로

암홍색이다. 더듬이는 흑색이고 배 끝에 백색의 긴털이 6개나 있다. 부화약충은 자람에 따라 등면이 융기되고 주름이 생기며 밀납으로 덮이게 된다.

●생태: 년 2~3회 발생하며 성충 또는 약충으로 월동한다. 발생이 불규칙하여 알, 약충, 성충이 동일한 시기에 모두 발견되나 약충의 개체 수가 비교적 많이 출현하는 시기는 6월상순, 8월상순, 10월이다. 다 자란 암컷은 배에서 밀납을 분비하여 15개의 주름이 있는 백색의 밀납 알주머니를 만들고 20~30일 동안 제1세대는 약 650개, 제2세대는 22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. 알기간은 14~40일 정도로 여름의 경우 2주일 정도이다. 부화된 약충은 며칠 후 알주머니를 빠져나와 잎이나 가지에 정착하거나 바람에 의해 분산되기도 한다. 1령기간은



◀성충깍지

▼가지피해

2~3주로 잎 뒤의 주맥에 기생하다 2령이 되면 굵은 가지로 이동하여 2~4주를 보낸다. 3령충은 몰려서 기생하며 20~50일 후 성충이 된다. 수컷은 3령기에 7~10mm길이의 백색 고치를 형성하고 10일 정도의 전용기간을 거쳐 번데기가 되며, 1~3주일 후 성충이 된다. 암컷 성충은 먹이 없이도 40일 정도 살 수 있으며 단위생식도 가능하다.

●방제법: 12월부터 1월까지에 기계유유제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, 발생개체수가 적을 때에는 기생된 신초나 피해 가지를 제거한다. 발생개체수가 많을 때에는 약충 발생시기에 디메토유제, 메치온유제, 메프유제, 부프로페진·푸라치오카브수화제 및 부프로페진·



아미 트라즈유제 등 깍지벌레 약을 나무 전체에 약액이 골고루 묻도록 살포한다. 약제살포는 해충의 발생상황을 보아 앞에서 깨어난 약충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1~2회 살포하며 성충은 밀납으로 덮여 있어 약제를 살포해도 잘 죽지 않으므

로 방제효과가 떨어진다. 성충과 약충은 묘목 또는 접목에 붙어 전파되므로 건전한 것을 구입하도록 하며, 천적으로는 포식충인 베달리아무당벌레가 효과적이고, 애플잠자리, 무당벌레, 홍테무당벌레 등이 있다.

**조경수**